

危機를 機會로



孫正守 興倉物産(株)社長/本會 非常勤理事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많은 變化의 소용돌이를 實感해야 했던 大激變期였습니다.

'80年代의 韓國經濟는 '80年의 危機와 昏迷속에서 出發하여 '80年代 中半부터 3低현상에 힘입어 어려움을 이기고 物價安定, 高度成長, 國際收支의 黑字轉換이라는 神話を 創造했고 昇天하는 龍으로 稱頌되다가 '80年代末에 와서는 흔히 外國言論에 報道된 바와 같이 지렁이로 轉落하리만큼 危機狀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國際的으로는 最近의 東·西獨事態를 비롯하여 루마니아의 變革과 共產國家들의 開放趨勢, 通商마찰에 依한 換率戰爭과 繼續的인 市場開放壓力擴大, EC의 統合과 先進諸國들의 保護主義的인 블럭化와 競爭相對로 追擊해 오는 東南亞 後發 開途國들의 浮上等 先進國들의 新技術開發 및 技術革新의 加速化는 우리經濟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더욱더 促求하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가 處해있는 時代의 狀況은 어제가 벌써 옛날이며 한치 앞을 豫測하기 어려운 激變期여서 企業의 經營與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중첩되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입니다.

'90年度 한 해를 본다면 우리經濟는 캄캄하다고 하겠으며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아가지 않으면 窒息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視覺입니다.

萬一 우리經濟의 主體들이 제때에 제대로 沈着性을 되찾지 못한다면 '90年度의 어두운 올해에 끝나지 않고 '90年代라는 10年동안을 내내 支配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오늘의 危機는 다른 사람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었으므로 우리들 스스로만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危機를 危機로 보지 말고 跳躍을 爲한 새로운 機會로 만들기 위하여 各個人은 스스로 지나친 慾心을 節制하는 努力을 하여야 될 것이며 國家的으로는 政治와 社會가 安定될 수 있는 規律과 秩序가 確立되어야 하고 企業內的으로는 人間尊重의 勞使觀 定立을 위한 意識改革으로 相互間의 信賴와 秩序가 回復되어야 하며 企業家의 投資意慾을 振作시킬 수 있는 經濟政策的인 支援과 果敢한 技術投資開發을 誘導하여 推進하므로써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 한편 한 時代를 責任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對한 確固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個人과 家庭, 職場과 社會·國家觀을 確立한다면 勞使和合 위에서 生産性向上, 技術開發, 品質改善 등을 通하여 危機를 새로운 機會로 바꿀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